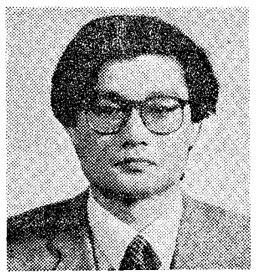
## 노동소외에 관한 현상학적 고찰 <上>

# 인간주의 실현과 상실의 갈등



김 덕 원
<동문·호서대 강사>

### Ⅰ. 현상에 대한 모색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한계인들은 자기들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많은 불편을 느껴왔고, 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규범적 룰을 비판했으며 그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이상향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살아왔다.

그러한 작업은 인류의 역사와 문화속에 융해되어 문명을 진보시켰고 인류의 멸망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생활은 현실과는 상이한 대안을 찾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더우기 사회문제는 본질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상이한 인간집단간의 세력관계라고 해석할때, 토지의 사적 점유와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시공동체시대를 예외로 하고서는 세력관계의 한쪽에는 강한자가 존재하고 다른 한끝에는 약한자가 있는것이 지금까지의 인간사회의 모습이다.

이러한 관계는 정치적으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란 모습으로 나타나며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란 형태로 나타나며 경영면에서는 관리자와 피관리인이란 양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고도의 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첨단적인 진보가 기계의 지배를 초래하였고 또 현대사회의 기본적인 특징인 대량생산체제는 상품생산과정에서 정신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노동력을 상품화시키고 있어 노동자의 소외, 노동력의 물신화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자유기업을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에 있어서 그 목적이 생산활동 자체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보수의 다과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 이 비인격적인 생산활동이 고통스럽고 지겨운것으로 인식되었다.

즉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인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못하고 자아상실의 상태에 빠져 노동소외문제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노동자의식의 향상으로 노동자의 노동소외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고 노동자들의 욕구가 고도화됨에 따라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는데 인간을 무시한 과학, 기술의 혁신과 거대한 조직화, 이윤추구에 치우쳐 인간적 측면을 경시하는 경제상황 아래서의 산업화와 더불어 「인간성실현」이라는 노동의 본원적 의미를 상실한 노동의 소외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민중소외로 까지 확대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위의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노동소외에 관한 사회경제적 인식에 초점을 두어 이의 현대적 의미, 사회적 구조와 유형 및 이를 극복할수 있는 대응방안을 시론적으로 접근해 보기로 한다.

### Ⅱ. 노동소외의 의미

소외 (alienation) 란 인간이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창출된 사물 혹은 사회적인 관계가 인간으로부터 자립화하고 마치 독자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인것 처럼 인간을 포위하고 그 결과 이를 사물이나 사회적 관계를 낳은 인간이 역으로 그것들에 의해서 규제·지배되고 때로는 그것들을 숭배하는 형태로 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주체와 객체와의 본질적인 관계가 전도된 구조를 지칭한다.

다시 말하면 소외란 본래 내것이었던 것, 또는 내 것이 되어야 할 것이 내게서 떨어져나가 버림으로써 결국 나와는 관계없는 낯설고 먼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 따라서 그것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참되고 본래적인 나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되고마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한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외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노동은 노동자에게 있어 외적인 것으로 그의 속성(nature) 의 일부가 아니며 노동을 함으로써 자기자신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정하게 되고, 고통을 지니게 되며 행복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 활동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에너지를 자유롭게 개발시키지 못하고 육체를 피폐시키며 정신적인 질곡을 겪게끔 한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그의 여가시간 동안만 편안함을 느낄수 있는 반면, 작업중에는 불편함을 느낀다』

즉, 그는 노동의 소외가 ①노동이 근로자의 속성에 속한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이며 ②그의 노동이 자발적이라기보다는 강제적인 것이며 ③그의 노동이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인간은 경제적 과정에 의하여 그의 인간적 속성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것이다.

이에따라 노동의 소외는 노동에의해서 생산되는 대상 즉, 노동생산물이 생산자로부터 떨어져나가 낯설고 멀게 되어 버리는 것--낯설고 먼 노동생성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자는 주체가되지 못한채 노동의 대상을 상실하고 그 대상에 예속되는것을 뜻한다.

임금노동자의 노동력 자체가 상품으로되어 (fetishism of commodities) 자본의 지배하에 발겨짐에 따라 인간에게 고유한 대상적 본질로서의 노동이 소외된 상황에서 인간은 대상을 상실하고 자기의 본질을 잃게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영역에서 소외를 네가지 측면 즉 인간은 그가 노동한 대상 노동과정, 인간 그자신, 그의 공동체 등으로부터 소외된다고 주장하였다.

자본주의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에서 노동소외가 일어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과는 달리 현대사회속에서의 소외는 체제를 불문하고 나타나는데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는 소외된 노동과정을 가져오는 본원적인 요인이된다.

특히 소외된 인간의 노동소외를 극복하고 대상적인 세계와 다른 소외된 인간과의 관계를 올바르고 참답게 맺기위해서는 소외된 노동을 폐지하는 또다른노동을 필요로한다.

소외된 노동의 지양은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는 바로 그순간에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외된 노동에대한 자기의식을 바탕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실천만이 참되고 올바른 의미에서의 노동이되는 것이며 모든것을 상품으로 변형시키고자 하는 경향을 지닌 시장경제하에서의 노동소외현상을 지양할 수 있는 방법론적 명제인 것이다.

### Ⅲ. 노동소외현상의 사회적 구조와 유형

#### 1. 노동소외현상의 사회적 구조

노동자 자신들이 체험한 환경, 여건및 현재 처하고 있는 사회적 구조는 그들이 노동조

# 생산물에 예속돼 자신의 본질 잃어

## 자기 의식 위에 역사 창조하는 실천 필요

①자기자신의 건강으로부터의 소외 : 오직 건강했을 때만이 노동을 팔 수 있기 때문에.

②자기가 생산한 물품으로부터의 소외 : 돈이 많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로만 되기때문에.

③노동계층 서로간의 소외 : 주인으로부터 받는 임금의 격차와 고용해제의 압력에 의하여 동료간의 극심한 경쟁적 투쟁이 증가되기 때문에.

④계층간의 소외 : 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층에 있는 사람도 형식상의 시민권에는 평등이라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생활면에서는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차별·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노동계층에 있어서의 소외현상에 연계되면서 일단 특정한 환경및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지닌 각 개인들은 특정한 가치관과 그들의 노동에 대한 태도를 지니게 되며 이는 집단의 생산규범을 준수할 것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그룹은 직무, 직장에 반응하고 대응할 것인가 같은 문제에 대한 그들의 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음에서 보는바와같이 소외는 파업및 환경의 함수이다.

즉, A=F(T·E)(A : 소외 T : 파업, E : 환경)

인간이 작업하는데 수반하는 문화는 그가거기서 표현하는가치와태도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주고있다.

여기서 문화란, 무의식적일에도 불구하고 특정사회의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주위에 지니고 다니는 애매하고 복잡하며 불안전한 인지적지침으로서 그들이 느끼고 행동하고 또는 사색하는 모든일에있어서의 특정한 양식을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문화는 사회생활양식의 부분으로서 그리고 그의 구성원들의 삶에 사회적의미를부여하는 것으로서 믿고 행동하며 학습되는 공유된 방법과 동의어이다.

이상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의 소외이론의 핵심은 바로 무산대중의 권리를 대변하는 노동자철학에다름아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역사를 통하여 사회 속에서 활동한 결과에 의하여 우리 문명의 이기가 오늘날과 같이 풍요하게 되었다고 그는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구체적인 사회적 구조 혹은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특히 노동소외에서관계된 문화적 차원의 문제는 필수적으로 가치관에 관한 토론에 상응하는 정확한 가치문제의 정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 상호간의 사이가 진실이 아니라고 느낄때 소외현상은 더욱 확대되는 것이라 볼수있다.

노동자는 자기가 자라난 사회에 따라 그의 소외수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예를들어 직무만족이 빈민가에 있어서 더욱 높다는 것이다.

이는 그곳의 노동자들이 그들에게 가능한 대차적 지위를 비교하여 볼때 그의 현재 직무는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것으로 보일수 있다.

더우기 우리나라처럼 급속한 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이실시되는 가운데 산업질서나 노동문화가 확립되지 않아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의식이 약하거나 모호하게 되었고 저임금, 장시간노동, 열악한 작업환경 등과같은 노동조건으로 인해 노동소외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사회구조적 발생요인으로서 그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하겠다.

<다음주에 계속>

## 서평 申正鉉編 『第3世界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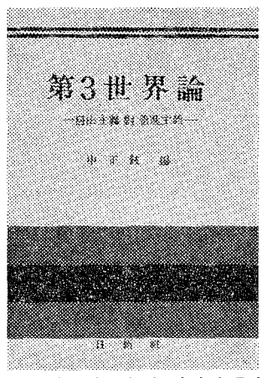
최근 몇해동안 우리 학계(특히 사회과학의 경우)에서는 학문의 적합성 문제와 관련하여 자기반성을 요구하는 글들이 자주 나오고 있다. 사실 한동안 우리 학계는 한국의 역사적 체험과 무관한 맥락에서 발전되어 온 서구의 이론들에 너무 얽매어 있었다. 그 결과 보다 우리다운 시각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설명하고 처방하는 일을 소홀히 해왔다. 아무리 정교한 논리체계를 갖춘 이론이라 할지라도 현실과 대응해서 별 소용이 없을때 그이론은 적합성을 상실한 것이다. 보다 적합성있는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이론의 분석대상에 대한 철저한 현실인식이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구체적인 현실과 유리된 이론이 적합성을 갖출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날 학계는 물론이고 일반인들 사이에서 제3세계에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학문의 적합성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확실히 한국은 서구보다는 제3세계와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제3세계의 문제의식과 역사적 경험에 충실한 이론들이 서구의 경험에 근거한 이론들보다 유용성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여기서 서구의 이론들이 전혀 적합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와같은 이론들을 무비판적으로 직수입하여 우리의 현실을 조명하려는 지적 태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제3세계를 다루고 있는 이론들에 관심을 갖는 것도 보다 이론적 차원을 다변화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을 설득력있게 설명할수 있는 이론을 마련하기 위함이지, 그 이론을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요즈음 제3세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여기에 관한 저작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저작의 대부분은 급진주의적 시각에 기초해서 제3세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시각은 주로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제3세계적인 문제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3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그에 대한 해결을 어느 하나의 시각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현상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이번에 申正鉉교수의 편저로 나온 『제3세계론:자유주의 대 급진주의』는 급진주의적 시각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제3세계를 접근해 들어 갈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고 본다. 신교수에 의하면 『지금까지 제3세계에 대한 접근은 자유주의와 급진주의라는 상이한 두가지 이론적 시각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자유주의와 급진주의적 시각이 그의 지적 배경이나 방법, 개념및 이론등에 있어서 상이한 측면들을 내세우고 있다 할지라도 제3세계 문제에 접근하려고 할때에는 두가지 시각에서 각기 제기된 관점들을 서로 배타적인 것들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결합해서 중요한 것들을 수용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지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신교수의 견해이다.

신교수는 이와같은 점에 유의하면서 그동안 학계에서 제시되어 온 제3세계에 관한 중요한 글들 중 두가지 시각을 대표할수 있는 글들을 선정하려고 상당히 노력한것 같다. 여기서 신교수의 편저내용(7장으로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록 자유주의와 급진주의적 시각이 지적 배경이나 방법, 개념및 이론 등에 있어서 상이한 측면들을 내세우고 있다할지라도 제3세계 문제에 접근할 때에는 두가지 시각을…적절히 결합해서 중요한 것들을 수용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지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먼저 1장에서는 제3세계에대한 연구동향, 제3세계의 특성 그리고 제3세계를 보는 두가지 시각 (자유주의와 급진주의)문제를 다루고 있는 편저자의 글을 소개하고 있다.

2장은 G. 리히트하임의 「제국주의」에 관한 논문과 M. 팔머의 「식민주의와 전통사회의 붕괴」라는 논문을 발췌, 번역한 것이다. 리히트하임의 논문은 제국주의의 뿌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한편 팔머의 논문은 제국주의나 식민주의의 발생원인이나 과정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고 서방세계의 식민지지배가 구체적으로 제3세계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3장에서는 S. M. 립세트의 논문을 비롯한 5편의 글을 소개하고있는데 그중에서 산업화와 정치체제의 변화문제를 상반된 입장에서 다루고 있는 립세트의 「민주주의의 사회적 제조건」이라는 논문과 D. 콜리에의 「관료적 권위주의모델의 개관」이라는 논문을 주목할 만 하다.

4장에서는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해 온 과정이 제3세계국가들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경제발전단계설을 주장한 W. W. 로스토우의 글과 경제발전단계설이 서구와는 달리 제3세계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를갖고 있는 종속이론가(A. G. 프랭크, T. D. 산토스 등) 의 저발전이론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

5장에서는 주로 제3세계의 사회, 문화적 변화문제를 다루고 있는 C. 기어츠와 R. 클라크의 글을 소개하고 있다.

6장에서는 서방선진국에 대한 제3세계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있는 C. 머피의 「제3세계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신국제경제질서이데올로기의 발전과 의미에 대한 해석」이라는 논문을 발췌,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다.

끝으로 7장에서는 제3세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토대로 제3세계의 장래 문제에 대한 편저자 자신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 편저자는 제3세계의 장래는 제3세계 자체에 의존될 수 밖에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제3세계가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발전의 문제가 비록 세계적 수준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제3세계 자체의 결의와 능력에 따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유주의적 시각과 급진주의적 시각 모두를 포괄해서 제3세계를 다룬 연구업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특징과 강점이 있다. 실제로 이 두가지 이론적 시각은 서로 상이한 인식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3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해결점을 제시하는데에 있어서도 상이한 견해들을 내세우고 있다. 예컨대 자유주의적 시각은 선진자본주의국가들과 제3세계를 별개의 분리된 영역으로 취급하는 반면, 급진주의적 시각은 그들을 하나의 세계로 연결된 전체성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유주의적 시각에서는 제3세계의 근대화나 발전은 그 자신의 구조적 모순과 전근대적 문화속성들을 탈피하고 서방선진국가들로부터 자본과 기술및 관리능력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이에 반해서 급진주의적 시각은 세계가 중심과 주변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이들이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3세계의 발전은 그 자체로서 어렵게 되며 어느 정도 발전이나 근대화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선진공업국의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저발전의 상태를면치못하게된다고주장한다.

이렇게 볼 때 어느 한 시각만을 중심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접근해 들어 가는 경우, 그로부터 얻어진 결과가 결코 전체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질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어느 하나의 이론이 그것을 주창하거나 받아들이는 측에 이익이 돌아간다는 사실이 전제되면 그것은 이론 이전에 이데올로기라고 볼때 자유주의적 시각이나 급진주의적 시각은 다같이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는다.

어느 하나의 이론적 시각이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게되면 자연히 다른 시각에서 제시된 관점들을 전혀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하기 쉽다. 결국 이렇게 되면 제3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어렵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정현교수가 펴낸 『제3세계론』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것 같다. 물론 이 책에도 보완할 점이없는것은 아니다. 예컨대 동일한 주제를 상반된 이론적 시각으로 보는 글들을 본래의 편집의 도대로 일관성있게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편저자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각기 일정한 논리와 지적기반위에서 쓰여진 여러 학자들의 글을 분야별로 발췌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불가피한 일인지도 모른다.

최 완 규
<경남대교수·정치학>

---

| | | | | | |
|---|---|---|---|---|---|
| 기술직 | | 선택(1) : 전기기계, 송배전공학, 발전공학 | | | |
| 공개경쟁 | 건축직 | 필수(5) : 국어(한문포함), 국사및국민윤리, 물리학개론,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 | |
| | | 선택(1) : 건축계획, 구조역학, 건축법규, 도시계획 | | | |
| 채용시험 | 농림직 | 필수(5) : 국어(한문포함), 국사및국민윤리, 생물학개론, 재배학원론, 토양학 | | | |
| | (농업) | 선택(1) : 수도작, 전작, 공예작물학 | | | |
| | 화공직 | 필수(5) : 국어(한문포함), 국사및국민윤리, 화학개론, 단위조작, 화공열역학 | | | |
| | (일반화공) | 선택(1) : 화공양론, 유기공업학, 무기공업화학 | | | |
| 9급 | 행정직 | 필수(5) : 국어(한문포함), 국사, 영어, 수학(Ⅰ, Ⅱ-1), 정치·경제및 국민윤리 | | | |
| 행정·공안 | 세무직(내국세) | 필수(5) : 국어(한문포함), 국사, 영어, 상업부기, 정치·경제 및 국민윤리 | | | |
| 직군 공개 | 교정직·보도직 | 필수(5) : 국어(한문포함), 국사, 사회·문화, 정치·경제, 국민윤리 | | | |
| 경쟁 채용 | 검찰사무직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국사 및 국민윤리, 영어,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 | | |
| 시험 | 출입국관리직 | 필수(5) : 국어(한문포함), 국사 및 국민윤리, 영어, 행정법, 헌법 | | | |
| 9급 기술직 | 기계직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국사 및 국민윤리, 물리, 기계공작일반, 기계재료, 기계설계 | | | |
| | 전기직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국사 및 국민윤리, 물리, 전기통론, 전력, 전기기계 | | | |
| | 토목직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국사및국민윤리, 물리, 측량, 응용역학, 토목설계 | | | |
| 공개경쟁 | 건축직 | 필수(5) : 국어(한문포함), 국사 및 국민윤리, 물리, 건축구조, 건축계획 | | | |
| | | 선택(1) : 구조역학,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 | | |
| 채용시험 | 농림직 | 필수(5) : 국어(한문포함), 국사 및 국민윤리, 생물, 식용작물, 토양비료 | | | |
| | (농업) | 선택(1) : 농업경영, 농촌지도 | | | |

※수학(Ⅰ, Ⅱ-1)은구교육과정 "수학Ⅰ"범위내에서만 출제함.

## 3. 시험방법

| 가. 사법시험, 군법무관임용시험, 행정·외무·기술고등고시 | 나.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
| (1) 제1차필기시험 : 선택형 | (1) 제1·2차필기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
| (2) 제2차 필기시험 : 논문형 | (2)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 (3)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

※채용시험의 경우,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제4조에 의하여 불합격판정을 받은자는 제3차시험에 응시할수 없음.
※ 기술고등고시 응시자는 전자계산기 휴대사용 가능.

## 4.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다만, 외무공무원의 경우 외무공무원법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행정·기술고등고시는 만20세이상 35세이하인자, 외무고등고시는 만20세이상 32세미만인자, 7급은 만20세이상 35세이하인자, 9급은 만18세이상(다만, 교정·보도직렬의 경우에는 만20세이상) 28세이하인 자에 한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사법시험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자는 응시할 수 없음 사법시험은연령제한없음).
나. 학력이나 경력에 제한없음.
다. 7·9급 교정·보도직의 경우는 다음의 신체조건을 갖춘자이어야함.
(1)신장 : (남) 165(보도직은 162)센치 이상인 자, (여)154센치 이상인 자.
(2)체중 : (남) 55키로 이상인 자, (여)48키로 이상인 자.
(3)흉위 : (남) 신장의 1/2이상인 자.
(4)시력 : 교정시력이 두눈 각각 0.8이상인 자.
(5)색신 : 색맹이 아닌 자.
라. 농수산부 통계사무소 9급행정직 공채시험응시자는 색맹 및 적녹색약이 아닌 자이어야함.
마. 군법무관임용시험은 다음에 의한다.
(1)군법무관임용법 제4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시험공고일 현재 만20세이상 30세미만이어야 한다.
(2)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에 불합격 된 자는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신체검사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차시험합격자 발표시 공고한다.
(4)신체검사는 육군장교임용시의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다만, 현역장교인 응시자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2.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시행일정

| 시험명 | 접수기간(공휴일제외) | 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
| 제 28 회 사법시험 | 4.7(월) ~ 4.12(토) | 제1차시험 | 5. 13 | 5. 18 | 6. 28 |
| | | 제2차시험 | 6. 28 | 7. 8~ 7. 11 | 9. 13 |
| | | 제3차시험 | 9. 13 | 10. 7~10. 8 | 10. 23 |
| 제 7 회 군법무관임용시험 | 4.7(월) ~ 4.12(토) | 제1차시험 | 5. 27 | 6. 1 | 6. 28 |
| | | 제2차시험 | 6. 28 | 7. 8~ 7. 11 | 9. 13 |
| | | 제3차시험 | 9. 13 | 10. 10 | 10. 23 |
| 제 30 회 행정고등고시 | 5.12(월) ~ 5.17(토) | 제1차시험 | 6. 24 | 6. 29 | 8. 9 |
| | | 제2차시험 | 8. 9 | 8. 19~ 8. 22 | 10. 15 |
| | | 제3차시험 | 10. 15 | 11. 6 | 11. 15 |
| 제 20 회 외무고등고시 | 1.9(목) ~ 1.15(수) | 제1차시험 | 1. 21 | 1. 26 | 2. 11 |
| | | 제2차시험 | 2. 11 | 2. 18~ 2. 21 | 3. 22 |
| | | 제3차시험 | 3. 22 | 4. 4 | 4. 11 |
| 제 22 회 기술고등고시 | 8.27(수) ~ 9. 2(화) | 제1차시험 | 9. 9 | 9. 14 | 10. 18 |
| | | 제2차시험 | 10. 18 | 10. 28~11. 1 | 12. 6 |
| | | 제3차시험 | 12. 6 | 12. 18 | 12. 27 |
| 7급 행정·공안직군 및 외무행정직 공개경쟁채용시험 | 6.16(월) ~ 6.21(토) | 필기시험 | 7. 29 | 8. 3 | 9. 3 |
| | | 면접시험 | 9. 3 | 9. 23~ 9. 24 | 10. 2 |
| 9급 행정·공안직군 공개경쟁채용시험 | 2.6(목) ~ 2.15(토) | 필기시험 | 3. 18 | 3. 23 | 5. 10 |
| | | 면접시험 | 5. 10 | 6. 11~ 6. 12 | 6. 21 |
| 7급 및 9급 기술직 공개경쟁채용시험 | 3.10(월) ~ 3.15(토) | 필기시험 | 4. 15 | 4. 20 | 5. 24 |
| | | 면접시험 | 5. 24 | 6. 18 | 6. 28 |

※시험장소와 제1·2차(필기)시험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서울신문과 정부종합청사 게시판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통지함. 다만, 사법시험, 군법무관임용시험및 고등고시의 시험위원명단은 당해시험 최종합격자와 함께 서울신문에 공고한다.

##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교부 (1)교부기간(공휴일 제외) : 1986년 1월 8일부터 연중 교부함.
(2)교부처 : 총무처고시1과, 부산직할시인사과, 대구직할시총무과, 인천직할시 총무과 및 각 도 서무과.
(3)교부방법 : 당해시험의 응시수수료에 상당하는 정부수입인지를 지참한자에 한하여 이를 응시원서에붙여 소인후교부함.
나. 접수처 (1)군법무관임용시험, 외무·기술고등고시 : 총무처고시1과(서울)
(2)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7·9급 기술직공개경쟁채용시험 : 총무처고시1과(서울), 부산직할시·대구직할시·충청남도·전라남도 고시계.
(3)7급행정·공안직군 및 외무행정직과 9급행정·공안직군 : 총무처고시1과(서울)와 각시·도(인천, 경남·북제외) 고시계.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응시원서 하단의 반신용 우편편서(우표를 붙여)에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함(접수마감일자 소인분까지 유효함).
※응시원서 접수지역 이외의 타지역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나.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4.5㎝) 3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다. 응시수수료 : 사법·군법무관임용시험및 고등고시(2,000원), 7·9급(1,000원)

## 8. 시험의 일부면제

사법시험, 군법무관임용시험및 행정·외무·기술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일부 면제의 뜻을 밝혀 출원한 자에 한함.

##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7급 및 9급 공채시험에 한함)

가.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1)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국가유공자와 제2호의 유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0%를, 나머지 취업보호 대상자의 경우에는 만점의 8%를 각각 가산함. (응시자 본인에 취업보호 대상자 등록 여부와 해당 가산비율을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2) 제대군인(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될자 포함) :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중 2년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자는 필기시험 각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5%를,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자(방위소집이 해제된 자 등)에게는 만점의 3%를 각각 가산함. (단, 특례보충역, R·N·T·C, 특수전문요원등은 제외)
나. 기능소지자 :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주산·타자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까지 다음표에 의한 점수를 가산함(이 경우 중복되는 자격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다만, 상기『가』항과『나』항이 중복되는 응시자의 경우에는 두가지 가산점을 합산함, ※기능소지자 가점 구분표

| 구분 \ 가산비율(%) | 1.5 | 1 | 0.5 | 인정하는 자격증 |
|---|---|---|---|---|
| 주산 | 1급 이상 | 2급 ~3급 | 4급 ~5급 | 대한상공회의소('84. 1. 1이후)에서 발행한 자격증(단,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자격증(또는 등록확인서)은 인정하나, 그외의 기관 및 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는 합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교부및 노동부 검정기준에 의한것에 한함). |
| 타자 | 1급 | 2급 | 3급 4~급 | |

## 10. 7급 행정직 및 9급행정·공안직군의 지역별 모집에 따른유의 사항

가. 지역별 채용시험이므로 상기지역별 선발예정 인원표에 따라 희망임용예정지역의 접수처에 원서를 접수시켜야 함.
나. 지역별 선발예정인원은 당해지역의 출원자중에서 선발하며, 합격자는 해당지역의 각중앙행정기관 및 원선거관에 임용될것임

## 11. 기타특전

○고등고시 합격자중 현역 입영대상자는 육·해·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병역법 제50조 제4항).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및 해외유학 파견기회 있음.